

# 여성 독립운동 활동상 사진으로 만나다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기획전시 '독립이라는 이름의 꽃' 개최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이하 기념관)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함께 싸웠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독립이라는 이름의 꽃' 기획전시를 오는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 안에서 나라의 위기 속에 남남가 따로 없음을 외치며 독립운동을 펼친 여성들의 적극적인 독립운동 참여 배경과 국내의 여성독립운동가 및 여성단체의 주요 활동상을 50여 장의 사진으로 소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거리로 나선, 여성들의 만세' 합성!에서는 개화기 여성인권 및 인식의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 과정을 알아본다. △2부 '임시정부

와 국내의 여성독립운동'에서는 임시정부와 함께한 여성단체와 여성민의 독립운동 활동을 담고 있다. △3부 '군복을 입은 여성광복군'에서는 조선의용대,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등에서 활동한 여성투사들과 일제에 맞서 광복이전까지 지속된 여성들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소개한다.

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 싸운 여성들의 희생적인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은 호남 최초의 만세운동 발상지인 구암동산에 건립되어 연간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전하고 있다.



독립이라는 이름의 꽃 포스터

기념관 1층과 2층에는 3.1운동의 확산과 군산의 항일운동을 주제로 한 상설전시가 조성되어 있으며, 3층 체험교육실에는 태극기 만들기, 만세운동 전파하기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체험물이 마련되어 있어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 장인 손끝으로 만들어진 누비 작품 전시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 2월 11일까지 수수나눔기획전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전주공예품전시관은 내달 11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2024 '수수(수수) 나눔 기획전' '전통-있다.있다'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이수자 최재희 작품전으로, 전통 기법의 손누비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주제로 삼았다. 전통복식의 참고유물을 재현하고 누비의 조형적 특징을 살린 디자인 협업작품을 통해 한국적인 미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 수수나눔기획전 '전통-있다.있다'에서는 공예 인식의 대중화를 위한 누비 체험 워크숍도 마련했다. △1월 11 14시 누비 컵받침 만들기 △1월 25일 14시 누비 명함지갑 만



누비 작품 사진

들기가 전주공예품전시관 누리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 바느질이 가능한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인원은 소규모로 진행되며, 전주공예품전시관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부득이 현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 전시 영상을 통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는 유튜브 검색창에 '전주공예품전시관' 또는 '수수 나눔 기획전'을 검색해 시청하면 된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지혜와 경험, 기술이 응축된 장인의 손끝으로 만들어진 누비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특별히 전주에서 조망되지 않은 분야인 누비로 주제를 삼았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 2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장수군,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장수군(군수 최훈식)이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지원을 위한 2024년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지난해 11만 원에서 18%가 인상된 1인당 연간 13만 원이 지급되며, 1,626명을 대상으로 총 2억 1,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카드 발급자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올해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로운 카드 발급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소리 판' 완창무대 심사 결과 발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2024년 판소리마당 '소리 판' 완창무대에 참여할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밝혔다. 선발된 출연자들에게는 무대 운영 및 출연에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총 5명(조희정, 고석준, 김명남, 김명숙, 김도현)이 선발되어 2024 '소리 판' 완창무대에서 판소리 5바탕(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중 한바탕을 펼친다.

판소리마당 '소리 판' 완창무대는 판소리 완창 공연의 정착과 판소리의 계승·보존, 그리고 판소리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자 2020년부터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시작한 대표적인 기획공



연이다. 이번 공연은 24년 3월부터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총 5회 개최된다.

김중현 원장은 "공모에 참가한 모든 소리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소리 판'은 판소리 완창 공연의 전통을 이어가며 판소리 예술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악기 연주 체험 · 공연 감상 즐겨요"

군산시립예술단 지휘자와 함께하는 키움 으뜸 아카데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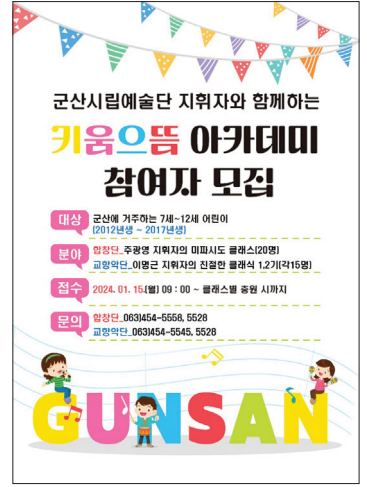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군산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악기 연주 체험 및 공연 감상 등을 통해 음악예술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군산시립예술단 지휘자와 함께하는 키움 으뜸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교향악단 '이명근 지휘자의 친절한 클래식 1기·2기'와 합창단 '주광영 지휘자의 미파시도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교향악단 프로그램의 경우 2기 총 30명(기수별 15명)이 수강할 예정이며, 합창단 프로그램은 총 20명이 수강할 예정이다.

'이명근 지휘자의 친절한 클래식'은 공연장 관람 예절, 악기에 대한 소개와 금관악기를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으며, 오케스트라 지휘법에 대한 교육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

아울러 수강생들과 함께 2월 교향악단 하우스 캔들 콘서트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주광영 지휘자의 미파시도 클래스'는 발성과 호흡법, 가창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2월 합창단 기획연주회 '시민과 함께하는 토비음악회(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시립예술단 지휘자와 함께하는 키움 으뜸 아카데미' 신청은 오는 15일 월요일 9시부



터 이메일 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향악단'과 '합창단' 프로그램 중 신청자가 원하는 기수와 프로그램에 접수할 수 있다.

단, 중복접수는 안되며, 선착순으로 수강인원을 선정한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어린이(2012년생~2017년생)는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 '태권도원' 전지훈련 메카 부상

2023년 1만2969명 방문 · 1월 전국 40여 팀 전지훈련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2024년 태권도원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에 전지훈련을 위해 태권도원을 다녀간 선수, 수련생이 1만2,969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과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시범공연 단,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등 태권도 주요 기관들은 물론 73개 단체가 태권도원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22년 대비 참가팀은 43%, 참가 인원은 79%가 증가한 결과로 숙박 요금 할인과 훈련장 무료 대관, 전자호구 기자재 및 체력단련장 이용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전지훈련 참가 단체 중 32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4.63점(5점 만점)의 높은 점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태권도원 시설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설문에 참가한 모든 단체가 "향후 태권도원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 항목에 매우 그렇다(27개), 그렇다(5개) 등 긍정적 평가로 재방문에 대한 의지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해 태권도원 등계 전지훈련은 2월까지 거의 가득 찼을 정도로 많은 문의와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며 "태권도원의 안전하고 우수한 시설에서 지도자들이 계획한 목표를 선수와 수련생들이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전지훈련 지원을 태권도뿐만 아니라 타 스포츠 단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월에는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해 서울 미동초등학교, 경기도 의왕 덕성초등학교, TS 태권도, 도복소리 등 전국 40여 팀이 태권도원을 찾을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제10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17일(수)~1월 18일(목)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라북도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